

파스칼의 내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확률은 어느 쪽일까요? 블레즈 파스칼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선택의 길

님께

세상에는 수많은 내기가 있지만, 그 모든 내기를 능가하는 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즈 파스칼은 누구일까요?

블레즈 파스칼은 프랑스의 뛰어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천재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열한 살 때 이미 기초적인 기하학 정리를 스스로 세웠고, 그 정리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적 능력은 나중에 확률 이론의 기초를 세우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논리적 사고의 원리를 정립했습니다.

한편, 파스칼의 아버지는 세관원으로 근무하며 복잡한 계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곤 했는데, 이를 돕기 위해 파스칼은 세계 최초의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발명은 이후 현대 계산기 발전의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고, 중요한 학문적 원리를 수없이 정립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31세의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으나, 그 글을 완성하기도 전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스칼(Pascal)’은 바로 그를 기리기 위해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을 공정하게 50:50의 확률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유는 ‘파스칼의 내기’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존재하지 않으실까요? 파스칼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 만약 너희들의 말이 맞고,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사실 별일 없을 거야. 나는 죽게 되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끝나겠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중 일부는 포기했을 수도 있지만,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너희들은 모든 걸,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우리 모두가 죽게 되잖아.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 설명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정말로 괜찮을거라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 누릴 건 다 누렸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파스칼의 날카로운 통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래전에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26).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요일 5:12).

어떤 외과 의사의 이야기

비고 올슨 박사(Dr. Viggo Olson)는 유명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블레즈 파스칼의 이 말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기독교 신앙에 완강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반박할 수 있는 모든 논거들을 찾아냈

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예상치 못했던 모험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올슨 박사는 자신의 체험을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까?』라는 책에 담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바로 성경을 읽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블레즈 파스칼의 확률 이론과 그것을 기독교 진리 주장에 적용한 방식, 즉 ‘파스칼의 내기’였습니다(덧붙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교회 전통이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스칼: 더 나은 선택

올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록 기독교 신앙이 참일 확률이 50:50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이 ‘내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이 게임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내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기에는 자기 삶을 거는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기독교 신앙이 참되다’는 주장에 걸거나, ‘기독교 신앙은 참이 아니다’는 주장에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 내기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이미 기독교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쪽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

한 사람이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가 맞다면, 그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가 틀렸다면, 그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이번에는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맞았

다면, 그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틀렸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더 생각해 볼 점들

올슨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과거에 열렬한 도박가였기 때문에, 파스칼의 이 논리를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의 논리는 기독교 신앙이 참일 확률이 50:50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어. 그런데 파스칼은 기독교 진리의 수많은 증거들을 고려하지 않았어.’”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파스칼 역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전도지 후반부에서 이 ‘증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예정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한 증거들은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 즉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률 이론의 기본 원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수고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 노력은 반드시 풍성한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올슨 박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기 동안, 나는 믿음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들의 믿음은 무뎌지고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줍니다: “두 명의 환자가 똑같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 두 사람 모두 나를 훌륭한 의사라고 믿고 있어. 그들은 내가 내린 진단이 옳다고 믿고, 내가 처방한 주사가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어. 이 중 한 사람은 주사를 맞고 살았어.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나와 치료법을 믿으면서도, 주사에 대한 비논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걸 거부했어. 결국 그는 죽어야 말았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환자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 두 사람 모두 약의 효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 ▶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
- ▶ 하나님과의 사랑에 기반한 관계
- ▶ 삶의 목적과 소망이 달라지는 변화된 새로운 인생
- ▶ 삶을 이끌어 가는 내면의 새로운 힘
- ▶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행복한 생명
- ▶ 우리는 결코 영원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성경에 따르면, 끝없는 지옥 형벌은 없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알아간다면,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예언들:** 성경은 긴 시간을 두고도 정확한 예언들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미 성취된 수백 개의 예언들을 우리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를 그렇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성경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기록한 이 책은 1,6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에 의해 쓰였으며,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내용이 놀랍도록 모두 서로 일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 **고고학의 발견들:** 수많은 발굴이 풍부한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고고학은 성경의 신뢰성을 인정합니다.

● **삶의 변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자신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증거들의 무게를 잘 저울질해 보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길

● **성경 읽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직접 읽으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신약 성경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신약은 우리 시대에 더 가깝고, 특히 예수님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

경을 읽을 때에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경 통신 과목:**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성경 공부 과정이 초보자과 성경에 익숙한 사람 모두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할 수도 있습니다.

● **성경 모임:** 소규모로 함께 성경을 나누는 모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만나서도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줌(zoom)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성경 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배우기 위한 성경을 알려주는 강의에 참석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 **여전히 의심이 된다면:** 진심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아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

“크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구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요 7:17). 하지만, 의도적으로 의심만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구별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반감이 없지만, 그분의 ‘지상팀’에게는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당신은 모든 것을 얻을 수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 헬무트 하우바일

▶ **추천:** 편지 6, 7, 8, 9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Letters to Andrew

▶ **문의:** juheeyeon@gmail.com

memo

성경통신학교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앱스토어에 '성경통신학교'를 검색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e-러닝 강의

강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스마트 웹북

성경통신학교를 모바일 웹북으로 공부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Zoom)

각자 있는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줌(Zoom)으로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e-러닝 강의와 스마트 웹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포인트가 쌓입니다(추천인 포인트 있음). 삼육물과 시조사물에서 사용 가능



서적 신청(유료·무료)

편하게 홈페이지와 앱에서 서적을 신청하여 구도자 분들에게도 무료 서적을 보내세요.



성경통신학교

Bible Correspondence School

1670-5235

<http://www.vop.or.kr/>

